

강진 한우산업, 농가 핵심 소득원 자리매김

강진牛시장, 전남서 두번째로 한우 거래량 많아 맞춤 한우개량사업 등 4대 핵심분야 역점 추진 성과

요즘 강진 우시장을 방문해 보면 강진군 한우산업의 인지도를 짐작할 수 있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우시장은 출하 농가와 전국에서 모인 상인들, 경매 진행직원 등 500여명이 북새통을 이루면서 아침 쌀쌀한 기운을 무색케 할 정도로 활기가 넘쳐 흐른다.

특정 지역의 농특산물 인지도를 알려면 그 지역의 농특산물 시장형성을 보면 알 수 있듯, 강진우시장을 보면 강진군 첫 번째 대표 농업소득이 한우라는 것을 실감케 한다.

강진완도축협이 운영하는 강진우시장은 강진전통시장과 같이 매월 4일과 9일로 끝나는 날 열리는 5일장으로, 전남에서 두번째로 많은 양의 한우가 거래되는 큰

시장이다. 추석을 10여일 앞둔 대목장에는 평균 350여두의 많은 한우가 출하 거래됐다. 송아지 평균가는 350~400여만원, 임신우는 600~900여만원, 비육우는 생체 1kg당 9천~1만원을 호가해 출하 농가들을 웃음지게 했다. 특히 한우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강진군의 맞춤형 한우개량사업 추진으로 한우농가들의 호주머니를 더욱 더 넉넉히 채우고 있다.

최근 한우산업의 동향을 살피고 농가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우시장을 방문한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군은 한우산업을 육성해 등급 출현율을 높이는 등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한우산업을 지역주민의 소



이승욱 강진군수는 최근 한우산업의 동향을 살피고 농가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우시장을 방문했다. /강진군 제공

득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그동안 맞춤형 한우개량사업을 중점 추진해 육질 개선과 혈통 좋은 송아지 생산을 위해 한우개량 통합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다.

맞춤형 정액급급 등 한우등록에서 선발, 도태까지 12종의 개량관련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 5년간 1등급 이상 평균 등급률을 14% 끌어 올리는 등 한우농가의 번영을 위해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강진=전원빈 기자 wonbin@

영암, 무화과 축제서 방문의 해 적극 홍보 관광·농특산물 홍보부스 운영... 일자리 채용행사도 병행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명실상부한남도 문화관광의 중심지로서, 3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2018 영암 방문의 해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하반기 영암 관광의 시작을 알리는 '무화과 축제' 현장을 찾아 적극적인 방문의 해 홍보 시간을 가졌다.

17일 영암군에 따르면 이번 홍보는 관광·농특산물 분야 담당 공직자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행사 기간 중 부스를 상시 운영함과 더불어 일자리 채용행사 부스와 연계 운영해 보다 안정적인 고용효과를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군에서는 홍보 전략으로, 하반기 주요 행사 4종(무화과축제, 월출산 국화축제, 제5회 항공레저 스포츠제전,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기념식)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규 리플릿 3종을 추가 제작해 배포함으로써 영암 방문의 해의 성공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지를 높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무화과 축제를 시작으로 하반기의 모든 주요 행사 추진 시 2018 영암 방문의 해 홍보 부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다음달 10일부터 1주일간 진행 예정인 수서역 SRT 홍보관 운영 등 주요 대·도시권 방문 홍보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은 기간 동안 300만 관광객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예정이다"고 전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hskim@



김순호 구례군수가 최근 추석을 앞두고 국군장병과 의경을 위문했다. /구례군 제공

김순호 구례군수, 추석맞이 군경 위문 구례경찰서·육군7391부대 3세대 방문해 격려금 전달

구례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순호 군수는 추석을 앞두고 최근 지역안보와 치안유지에 불철주야 경계태세에 임하고 있는 국군장병과 의경을 위문했다.

이날 김순호 군수는 구례경찰서, 육군 제7391부대 3대대를 방문해 지역안보와 치안을 위해 애쓰고 있는 국군장병과 의경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구례=김선식 기자 sgeonsik@

해남, 읍내권 주요 시가지 공공와이파이존 구축

해남군 주요 관광지에서 이어 읍내권 주요 시가지에 공공와이파이존이 구축돼 주민 누구나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됐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읍권 우슬경 기장에서 법원사거리 1구간과 한진아파트에서 고도사거리 2구간을 비롯해 군민광장, 해남공원에 공공 와이파이존을 설치했다. 공공와이파이 존은 무선 AP(Application Processor)를 설치해 반경 200m 구간까지 데이터 무료통신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용방법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단말기에서 해남군 공공 무선 와이파이망 Haenam_Free Wi-Fi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관광객 편의를 위해 초기화면에서 해남군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안내를 바로 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의 인터넷 과다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접속 1시간 후 자동으로 끊어지도록 설정돼 있다. 해남군은 내년 시내권 외곽지역(남부순환로·북부순환로)에 이어 2020년에는 13개 면소재지까지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 설치해 주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이다. /해남=윤규진 기자 jin2001@

진도군 의신면, 세쌍둥이 탄생 '화제'

보건소, 신생아용 기저귀 등 출산 축하 선물 전달

"진도군 의신면 급금리에 삼둥이 아빠가 떴어요." 초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세쌍둥이가 탄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삼둥이 아빠가 떴다'라고 해서 '연예인 송일국씨가 왔나 보다' 싶겠지만, 주인공은 진도군 의신면 급금리 김휴태·김세아 부부이다.

17일 진도군에 따르면 김휴태(45세)씨의 부인 김세아씨(26세)씨가 지난 6월 예쁜 세쌍둥이(남자 3명)를 출산해 김휴태씨는 삼둥이 아빠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세쌍둥이라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세상에 태어났지만, 다행히 산모와 아이들 모두 건강해 세쌍둥이 탄생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되고 있다.

세쌍둥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진도군 보건소는 세 아이들을 위한 신생아용 기저귀 등 출산 축하 선물을 최근 전달했다.

진도군 보건소 관계자는 "세쌍둥이는 진도군의 경사이며, 세쌍둥이 탄생이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기쁘다"고 말했다. /진도=한길준 기자 gjhan@

목포, 공직자 혁신 역량강화 교육 실시

목포시가 최근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혁신 역량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월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정부혁신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전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시정을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목포대학교 행정학과 양승주 교수는 현 정부의 혁신 추진 배경, 정부 혁신 10대 중점사업과 21개 추진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양 교수는 "사회학자나 미래학자들은 '불확실성의 사회, 정답이 없는 사회'로 현대사회를 정의한다. 이러한 진단은 과

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변화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답이 없는 사회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인인 국민과 시민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의 전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Sunshine GWANGYANG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여성이 안전하고, 어르신이 건강한

행복도시_광양